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서사각색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

건국시조의 사회부조화성(社會不調和性)과 분리(分離)·이주(移住)의 문제

권도경
(세명대학교)

1. 문제설정의 방향: 새로운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전제

건국신화가 아기장수설화와 애초에 동일한 구성요소를 공유하며 공존하고 있으며, 후자는 전자의 반대 대응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래 전에 주목할 만한 논고가 제출되어 있다.¹⁾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건국신화와 아기장수설화는 모두 신이한 ‘아기’인 장수의 영웅담으로 신마(神馬)²⁾·지모신(地母神)³⁾과 관련되어 있지만, 전자는 사회통합의 주체로 추대된 성공한 영웅담으로 기존 질서에 수용된 결과물이고, 후자는 무질서를 야기하는 실패한 영웅담으로 버려진 건국신화의 반대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이때,

1)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形成과 意味>, 『한국학논집』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133-151쪽.

2) 건국신화 속의 백마(白馬)와 아기장수설화의 용마(龍馬)는 모두 하늘을 상징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전자는 말의 비호를 받으면서 출현하지만, 후자는 말을 만나지 못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향유층에게 자기반성과 안타까움의 정조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천혜숙, 전계논문, 6쪽.)

3) 천혜숙은 아기장수의 어머니가 지모신격에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천혜숙, 전계논문, 7쪽.)

건국신화를 신성성(神聖性)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아기장수설화를 금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지배 이념이라는 사실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거듭 확인되어왔다.⁴⁾ 건국신화를 상대적인 기준점으로 선택하여 아기장수설화가 지닌 신성성의 기원과 지배이념과의 상대적 거리를 규명함으로써 아기장수설화의 양식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법은 탁월하다.⁵⁾

상기 접근법은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양식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일종의 서사적 전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 아기장수설화가 그 전제가 되는 건국신화와 차별화 된다고 지적되는 양식적 특질이 바로 아기장수가 지닌 무질서성(無秩序性)⁶⁾이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기존질서와 조화되지 못하고 불화하여 분리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존질서로부터 환영을 받아서 조화를 이루어 정착하게 되면 건국신화가 된다. 이에 근거하여 건국신화에 대하여 아기장수설화가 지니는 차별적인 양식적 특수성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기존질서의 지배이념에 대한,

㉗ 부조화성(社會不調和性)

4) 아기장수설화의 영웅성을 규명한 연구들은 인접 장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건국신화와의 관계 속에서 아기장수설화의 양식적 정체성을 탐색한 부류(①)이고, 다른 하나는 영웅소설과의 관련성 속에서 아기장수설화의 양식적 특징을 탐구한 부류(②)이다.

①의 연구 범주에는 다음의 논고들이 속한다. 강유리, <아기장수 설화 연구: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260-289쪽;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신화적 주제 탐색>, 『구비문학연구』10, 한국구비문학학회, 2000, 53-86쪽.

②의 연구 범주에 속하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해화, <「아기장수 傳說」의 新考察: 韓國的 超人의 悲劇과 그 背景>, 『한국민속학』16, 한국민속학회, 1983, 265-285쪽; 광정식, <아기장수 전설과 洪吉童傳의 比較 考察>, 『문화전통논집』1,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53-66쪽;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홍길동전』>, 『천잠어문학』12,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97, 9-38쪽;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아기장수설화와 홍길동전(2)>,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1-33쪽.

5) 아기장수설화가 기반 해 있는 신성성의 연원을 건국신화와의 상관성 속에서 고찰한 연구들은 명시적이건 비명시적이건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천혜숙의 전개논문이 시도한 접근법과 연구 성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6) 천혜숙, 전개논문, 6-11쪽.

㉔ 분리성(分離性)

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존질서에 대한 부조화성과 분리성이 과연 아기장수만의 전유물인가 하는 사실이다. 지배이념에 대한 불화와 분리는 건국시조에게서도 똑 같이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북방계 신화나 남방계 신화에서도 일률적으로 나타난다. 각각 전자와 후자의 건국시조인 단군·주몽이나 박혁거세·김수로 역시도 기존질서에 조화되지 못하여 분리되어 나온 존재로 되어 있다. 다만, 아기장수와의 차별성은 분리·이주 후에 자신이 주체가 된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데 있게 된다. 게다가 기존에 해외이주성공형으로 분류되어온 아기장수설화의 특정 이본군 중에는 건국신화처럼 해외로 이주하여 자신이 주축이 된 새로운 국가질서를 개창한 아기장수를 주인공으로 한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건국신화의 어법으로 설명하자면 건국시조가 되는 셈인데, 이들이 건국조가 아니라 아기장수로 남은 것은 당초 분리되어 나오기 전 단계의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에 의해 포착되어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원래가 건국신화란 자기집단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신성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들 해외이주성공형의 아기장수들도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정당화 하는 주체적인 언술에 의해 언표화 되었다면 건국시조로 형상화 되었을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국신화란 ‘아기’였던 장수가 단순히 분리·이주 후에 건국에 성공했다고 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권력을 합리화 하는 일종의 신성각색(神聖脚色)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성립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건국신화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친 후에 성립된 이야기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 ㉑ ‘아기’인 장수가 탄생
- ㉒ 기존질서와 불화(不和)
- ㉓ 기존질서로부터 분리·이주
- ㉔ 해외(海外)에서 건국
- ㉕ 신성설화(神聖說話)로 각색

㉔에서 끝나면 선행연구에서 제1유형으로 분류되어온 아기장수설화의 이본군이 된다. ㉑-㉒의 대단원은 죽음이다. ㉓에서 끝나면 선행연구에서 제2유형으로 분류한 아기장수설화의 이본군이 된다. ㉑-㉒-㉓의 대단원은 죽음-재생-투쟁-죽음이 된다. ㉔에서 끝나면 선행연구에서 해외이주성공형(海外移住成功型)⁷⁾으로 분류해왔던 아기장수설화의 이본군이 된다. ㉑-㉒-㉓-㉔의 대단원은 성공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기장수에 대한 신성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㉔까지 전개되어 신성관념이 부가되게 되면 아기장수가 아니라 건국시조가 된다. 건국신화의 자장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시작은 ㉑에서 탄생한 ‘아기’인 장수로부터 출발한다. 아기장수설화는 이 ‘아기’였던 장수가 비록 성공을 해도 그를 건국시조로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분리 이전 단계의 기존질서에 의해 언표화 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건국신화는 분리 이전 단계의 기존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창안에 성공한 ‘아기’였던 장수의 집단이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를 신성화 한 이야기가 되게 된다.

즉, 건국신화는 조화로운 ‘아기’를 환영한 지배질서가 그를 신성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질서와 부조화 된 ‘아기’가 분리·이주·건국 후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신성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기장수설화의 각색담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해외이주성공형이 신성하게 각색된 이야기로 보게 되면, 건국시조 역시 신성화 이전 단계까지는 아기장수처럼 기존질서의 주재자와 지배 권력의 소유 여부를 두고 경쟁하는 존재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존질서의 주재자는 자신을 신성시 하는 관념을 사회의 지배이념으로 통용시키는데 성공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이 경쟁자 역시 건국시조가 분리·이주하기 이전 사회질서를 창건하는데 성공한 아기장수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건국신화를 기존질서에 대한 순응적(順應的)인 이야기로 보는 일반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건국신화는 기존질서에 대한 부조화를 차별적 특징으로 하는 아기장수설화를

7)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화연구』3, 한국구비문화회, 1996, 230-233쪽 ;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홍길동전』>, 『천잡어문학』 12,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7, 9-38쪽.

조화롭게 각색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설정의 방향에 따라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각색담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논증해 보기로 한다.

II.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각색담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가설

아기장수설화가 아니라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양자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의문점] ① 사회 부조화(不調和)와 기존질서로부터의 분리성(分離性)이 과연 아기장수만의 전유물인가, 아니면 건국신화에서도 확인되는 것인가.
- ② 건국신화가 아기장수설화의 서사적 전제가 되는 반구조물(反構造物)인가, 아니면 아기장수설화이건국신화보다 서사적으로 선행한 서사적 반구조물인가.
- ③ 건국영웅과 기존 세력권자들과의 대결은 창업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적대자들과의 투쟁으로만 봐야 하는가, 아니면 건국시조가 된 아기장수와 건국시조 될 아기장수 사이에서 벌어지는 서사경쟁(敘事競爭)으로 봐야 하는가.

[의문점]-①의 사회 부조화와 기존질서로부터의 분리성 문제는 아기장수설화를 건국신화의 서사적 반구조물로 이해해온 연구 흐름에서 건국신화와 구분되는 아기장수설화만의 차별적인 정체성으로 거론되어 왔다. 좀 더 엄밀히 따져보자면 전자의 사회 부조화성과 후자의 분리성 문제가 아기장수설화의 제1·2유형에 적용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 전자는 제1·2 유형 공히 적용되고 있지만, 후자는 주로 제2유형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거론되어 왔다.⁸⁾ 이는 기존질서로부터의 분리성 문제를 협소하게 이해한 결

8) 천혜숙은 제2유형의 ‘출생-죽음-재생-죽음’의 구조가 ‘출현-분리-재출현-분리’의 도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출생-죽음’의 구조로 되어 있는 제1유형에 대해서는 분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바 있다.(천혜숙, 전개논문, 11-12쪽)

과다. 협의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죽음을 통한 기존질서로부터의 분리는 가출과 이주에 의해 제2유형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재생 이전 단계에 가출·이주는 모친 혹은 장군에 의한 살해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각편마다 같은 단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제2유형에만 한정지를 문제가 아니다. 가출·이주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출·이주란 지리적 분리가 죽음이라는 물리적 분리와 같은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아기장수설화에서 확인되는 기존질서로부터의 사회적 분리는 가출·이주라는 지리적 층위와 죽음이라는 물리적 층위를 아우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생으로 전개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제1유형 역시 기존질서로부터의 사회적 분리라는 아기장수설화의 양식적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분리성 문제는 전자의 사회 부조화성까지도 궁극적으로 포괄하여 아기장수설화의 양식적 차별성을 규정해낼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 될 수 있다. 기존질서에 조화되지 못한 결과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아기장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건국신화와 변별되는 아기장수설화의 양식적 정체성으로 규정되어 온 부조화성과 분리성이 건국신화에서도 확인된다는 사실에 있다. 서사주체가 기존질서의 주체와 부조화 되는 다른 이념을 구축·실현하고자 분리되어 나오는 양상은 거의 대부분의 건국신화 속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국 영웅들도 기존질서에 통합되지 못하거나 혹은 무질서를 야기한 결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다. 건국신화의 첫 장을 연 환웅에서부터 신화시대의 건국시조인 단군·동명·주몽·박혁거세, 왕권신화의 주인공인 금와·탈해·유리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아니다. 건국영웅도 아기장수들처럼 기존 지배이념을 내면화 한 선주민들로부터 수용이 준비되지 못한 존재로 인식되어 기존질서와 반목한 결과 국외(國外)·해외(海外)로 가출·이주하는 것이다. 이들 건국영웅들이 아기장수와 다른 점은 기존질서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상태로 서사가 마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가출·이주한 뒤에 이주지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기존질서로부터 사회적인 통합의 주체로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사회를 선도할 새

이후 후속 연구자들도 친혜숙의 견해를 이어받아 기존질서에 대한 분리의 문제를 제2유형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로운 주체로 인정되어 자신이 중심이 된 지배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통치자가 되기 때문이다. 지배이념·지배질서로부터의 부조화와 분리성이 건국신화의 서사 전체를 통어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기장수설화와의 차이점인데, 서사주체의 사회적 부조화성과 분리성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지배이념·지배질서로부터의 부조화와 분리성이 아기장수설화만의 양식적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건국신화 서사주체의 사회적 부조화성과 분리성을 어떻게 해명해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건국신화 속에 지금까지 아기장수설화만의 서사적 정체성으로 규정되어 온 사회적 부조화성·분리성이 확인되는 것과는 반대로, 아기장수설화에도 건국신화처럼 해외로 가출·이주한 후에 토착민들에게 사회를 제도할 새로운 통치자로 받아들여져서 자신이 주체가 된 지배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변이형의 각편들이 존재한다. 하동장·신청천·허학봉·송구봉·김복선⁹⁾, 울릉도시조¹⁰⁾ 등에 관한 텍스트들이 그 사례가 된다. 아기장수가 건국영웅들과 공유하고 있는 신이성을 예기치 못한 위협 요소로서가 아니라 지배를 위한 당연한 신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각편들은 건국신화처럼 성공한 영웅담이 된다. 이들 해외이주 아기장수설화 유형까지 포함한다면 아기장수는 건국신화와 신이성을 공유하고 태어나 왕이 될 뻔 했으나 왕이 되지 못한 영웅이 아니라, 왕이 되는 데는 성공했으나 신(神) 대신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모신적 속성을 공유하는 모친의 원조가 부재한 민중영웅 이라는데 그 차별성이 있을 뿐이게 된다. 여기서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는 건국영웅의 지배권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서사적 장치가 된다. 이때, 아기장수가 왕이 되는 곳이 생래(生來)의 기존질서 밖이라는 사실은 해외이주 아기장수설화 유형의 차별적 정체성이 되지 못한다. [의문점]·①에서 확인했다시피 건국영웅이 왕이 되는데 성공하는 곳도 모두 출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9)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1996, 230-233쪽 ;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홍길동전』>, 『천잡어문학』 12,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7, 9-38쪽.

10)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151쪽.

그렇다면 거꾸로 이들 해외이주 아기장수설화 유형의 아기장수에게는 부재하나 건국영웅에게는 유재(有在) 하는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를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기장수는 더 이상 아기장수로서의 변별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피지배층에게 지배층으로서의 헤게모니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서사적 장치를 동원한 건국영웅이 되는 것이다. 이들 해외이주 아기장수설화가 건국신화가 아니라 아기장수설화의 양식 범주 속에 여전히 포함되는 이유는 그 전승권역이 아기장수가 이주한 해외가 아니라 해내(海內)이기 때문이다. 즉, 아기장수를 해외로 분리·이주시킨 국내의 기존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속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아기장수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아기장수가 이주해 간 해외의 거주민들에게 유포·전승되는 이야기는 아기장수에게 인정된 통치의 헤게모니를 합리화 하기 위해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 서사를 첨가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기장수가 해외로 이주해서 국가를 창업하는데 성공한 지역권에서는 해당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기장수로서가 아니라 건국신화로서 향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해당 아기장수에 관한 영웅담은 해외이주 아기장수설화 유형에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 서사를 첨가하여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합리화 하고자 각색한 건국신화적 서사구조물이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점]-②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된다. 즉, 선행연구에서 인정되어온 이론과는 달리, 아기장수설화가 건국신화보다 선행했다는 것이다. 즉,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서사적 반구조물로 보는 새로운 가설의 성립 가능성이다. 국가 창업집단이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피지배층에게 합리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가 바로 건국신화라는 상식을 전제로 해 볼 때, 건국신화가 아기장수보다 이른 단계에 선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기실, 건국신이 되는 창업주란 정말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애초에 여타의 피지배층과 같은 민중 계층에서 나온 탁월한 자다. 건국시조들은 최종적으로 건국에 성공했던 중도에 실패했던 생애적으로 지배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데다, 실제로 자신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질서를 해체하는 존재다. 태생적으로 일종의 무질서의 아노미(anomie)를 유발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생

득적 속성은 가출·이주 전의 해내(海內)나 해외(海外)의 지역권 양쪽에서 공히 변치 않고 유지되는 것이다. 바로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 서사가 부기되기 전 단계에 위치한 아기장수의 정체성이다. 해내에서 지배층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기장수가 해외(海外)로 이주하여 사회통합의 주체로 성공한 이후, 당사자 혹은 직계 계보의 집단이 통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혈통을 신성혈통으로 각색하여 유포시킨 이야기가 바로 건국신화가 되기 때문이다. 무명씨였던 민중의 아들이 지배이념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해외로 이주하여 왕이 된 결과, 아기장수설화가 유명씨인 창업주에 관한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 편입되게 되어 건국신에 대한 신성한 이야기로 유통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왕조가 멸망하고 나면 특정 건국시조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되어 나와 무명씨화 되며,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 서사 역시 탈각되어 아기장수설화화 되는 변모 단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¹¹⁾ 어떤 경우이든 건국신화와 아기장수설화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건국신화의 형성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의문점]-②와 관련하여 선행하는 것은 건국신화가 아니라 아기장수설화가 된다는 가설이 가능해 진다. 곧, 아기장수설화의 기본형이 해외이주 성공형으로 변형되고 다시 건국시조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결합되어 서사각색이 이루어진 아기장수설화의 서사적 반구조물이 바로 건국신화일 가능성이다.¹²⁾ 이렇게 보면 건국신화 속에 아기장수설화와 같은 가출·이주를 통한 사회 부조화성과 분리성([문제1]-①)이 확인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아기장수설화가 각색되어 건국신화로 이행되는 서사분화 과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문점]-③의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건국신화 속에서 확인되는 기존 왕자(王者)들과의 대결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실, 기존 패자(覇者)들과의 대결은 건국영웅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 당연히 극복해야 할 시련과 고난의 통과이레로 규정되어 왔다. 그

11) 건국신화의 아기장수설화화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유형이 우투리 유형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2) 이는 천혜숙이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서사적 반구조물로 규정(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形成과 意味>, 『한국학논집』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133-151쪽.) 한 이래

러나 건국신화를 아기장수가 탄생 지역권역의 지배이념과 화합하지 못하여 분리해 나온 뒤 해외에서 성공한 창업을 신성서사를 통해 합리화 한 이야기라고 할 때, 건국시조가 되기 이전 단계의 아기장수가 해내에서 직면한 지배질서의 통합 주체는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 건국시조가 되기 전의 아기장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존 지배이념의 주체는 부당한 억압을 제공하는 투쟁의 대상이지만, 기존 세력권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건국시조가 될 아기장수는 자신이 중심이 된 지배질서를 해체할 지도 모를 무질서의 유발인자다. 기존 지배이념이 기존세력권자들의 왕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성혈통의 서사와 결합되어 있다면, 이들 선주 왕권 집단 역시 해당 건국신화 성립 전에 독자적인 신성 영웅담을 지니고 있었던 건국신화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현재 건국신화사의 주류 맥락에 편입되기 이전 단계에 독립적인 건국신화를 지니고 있었던, 하나의 개별적인 건국시조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전 건국시조들처럼 아기장수에서 출발하여 창업에 성공한 뒤 통치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성서사로 창업기를 서사적으로 각색한 건국신화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전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지배질서를 뒤흔드는 아기장수가 된다. 다만, 차이점은 현전 건국신화 주인공들보다 먼저 아기장수에서 건국영웅으로 이동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후발주자인 현전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에게 건국신화사의 주류 헤게모니를 뺏겼다는데 있다. 이 점에서 현전 건국신화에서 건국영웅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기존 질서의 패자(覇者)들은 모두 건국신화사의 서사적 헤게모니 경쟁에서 진 패배자가 된다. 새롭게 등장한 아기장수에게 패배한 이전 시대의 아기장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다툼은 신참자의 창업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한국건국신화사의 주류 맥락에서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서사적 헤게모니를 두고 벌이는 아기장수들의 서사경쟁이 된다.

지금까지 확인한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게 된다.

[가설]

- ① 사회 부조화성과 기존질서로부터의 분리성은 아기장수만이 아니라 건국신화에서도 확인된다.

- ② 아기장수설화의 해외이주성공형에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원조를 첨가하여 지배질서 내부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서사적 각색이 진행된 것이 건국신화다.
- ③ 한 건국신화 안에는 서사적 체계모니를 두고 경쟁하는 아기장수들이 수평적인 관계로 통합되어 있으며, 그 방식은 적대자와 보조자로 양분된다.

상기 세 가지 가설을 건국신화와 아기장수설화의 구체적인 예시 자료들을 논거로 들어 다음 장에서 입증해 보기로 한다.

Ⅲ. 건국시조의 무질서성과 분리·이주 후의 서사각색 문제

먼저, [가설]-①의 사회 부조화성(不調和性)과 기존질서로부터의 분리성(分離性)이 건국신화에서도 확인 된다는 가설부터 살펴보자.

[자료1] ①위서에서 이르길, 단군왕검이 있어 이천 명을 데리고 가, 아사달(A)에 도읍하고 개국하니 그 이름이 조선이다.¹³⁾

- ② 시조의 성은 박씨, 이름은 혁거세(赫居世)이다. 전한(前漢) 효선제(孝宣帝) 오봉(五鳳) 원년 갑자(기원전 57) 4월 병진일에 왕위에 올랐다. 왕호는 거서간(居西干)이다. 이때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으며 나라의 이름은 서라벌(A)이었다. 조선(朝鮮)의 유민들이 산골에 나뉘어 살면서 여섯 개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첫째는 알천(闕川)의 양산촌(楊山村)이라 하고, 둘째는 돌산(突山)의 고허촌(高墟村)이라 하고, 셋째는 취산(薺山)의 진지촌(珍支村)이라 하고, 넷째는 무산(茂山)의 대수촌(大樹村)이라 하고, 다섯째는 금산(金山)의 가리촌(加利村)이라 하고,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의 고야촌(高耶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한(辰韓)

13) “魏書云，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亦云白岳，在白州地⁹或云在開城東，今白岳宮是，開國號朝鮮。”，<古朝鮮王儉朝鮮>，『魏書』，『三國遺事』，卷一，奇異一，古朝鮮條。

6부가 되었다. 고허촌의 촌장 소벌공(蘇伐公)이 양산(楊山)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蘿井) 옆의 숲 사이에 말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곧장 가서 보니 말은 보이지 않고 다만 커다란 알이 있었다. 그것을 쪼개자 속에서 어린 아이가 나왔기에 거두어 길렀다. 나이 십여 세가 되자 뛰어나고 영리하며 몸가짐이 조신하였다. 6부의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신비롭고 기이하게 여겨 높이 받들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으로 삼은 것이다. 진한 사람들은 박을 ‘박(朴)’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의 커다란 알이 마치 박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그의 성을 ‘박’으로 한 것이다. 거서간은 진한의 말로 임금을 뜻한다.¹⁴⁾

[자료2] 김복선은 종의 신분이었으나 비범하여 각가지 방법으로 상전을 골탕먹였다. 임진왜란 전에 파리로 변신하여 조선을 정탐하는 청정을 물리쳤다. 울곡이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방책을 물으러 왔었다. 김복선이 나서면 임진왜란을 석 달만에 끝낼 수 있었지만 등용되지 못하자 이순신을 천거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주도하여 칠 년이나 끌었다. 그 후 김복선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에 가서 왕이 되었다. 동아일보 기자가 일본에 갔을 때 오키나와에서 ‘김복선지왕묘’라고 써여있는 비를 발견하였다.¹⁵⁾

[자료3] ㉗고려시대 김씨 집안의 한 과부가 임태하여 배가 불러왔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부모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령이를 죽였다. 옥동자를 낳았는데 온 몸에 비늘이 돋혀 있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 과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키웠다. 김씨 집안에서 지령이와 정을 통했다고 하여 아이의 이름을 김통정이라고 하였다. 김통정은 비범하고 도술을 부릴 수 있어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김통정은 육지에서 쫓겨 제주도로 왔으나 따라온 김방경장군을 당할 수 없어 백성과 함께 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급한 나머지 아기업개를

14)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 爲六村 一曰闕川楊山村 二曰突山高墟村 三曰齋山珍支村 [或云干珍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高耶村 是爲辰韓六部 高墟村長蘇伐公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居西干 辰言王[或云呼貴人之稱

15) <김복선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45쪽.

성에 들이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아기업개는 분함을 품고 김방경 장군에게 김통정 잡을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김통정은 은 비범하고 도술을 부릴 수 있어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김통정은 육지에서 쫓겨 제주도로 왔으나 따라온 김방경장군을 당할 수 없어 백성과 함께 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급한 나머지 아기업개를 성에 들이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아기업개는 분함을 품고 김방경장군에게 김통정 잡을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김통정은 결국 아기업개의 배신으로 김방경장군에게 죽고 말았다.¹⁶⁾

[자료1]은 『삼국유사(三國遺事)』본 <고조선신화(古朝鮮神話)>다. 엄밀히 말하면 흔히 알고 있듯이 환인·환웅·단군의 삼대가 등장하는 널리 알려진 삼대기 <단군신화(檀君神話)>가 아니라, 단군만 등장하는 <단군신화>다. [자료1]을 보면 의외로 단군이 건국한 도읍지 아사달(A)이 그가 태어난 출생지(B)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단군의 도읍지 하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과 달리 탄생지와 도읍지가 불일치하는 것이다. 출생한 지역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해서 나와 지역적·혈연적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하여 등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다르게 단군도 아기장수처럼 출생지의 지배집단과 조화를 이루어 그 곳에서 사회를 통합할 주체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료1]에는 단군의 부모도 등장하지 않는다. 혈통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가문과 가계가 한미해서 특별히 기록할 것이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가문이나 가계의 미기재는 곧 평민 출신의 계층성을 설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자료1]의 <단군신화>는 일반 민중 출신의 영웅이 출생지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이주하여 새로운 지역권에 위치한 사회를 제도할 통치자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된다.

북방계 건국신화의 출발점인 [자료1]-①의 <단군신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부조화성과 분리성은 남방계 건국신화의 대표격인 [자료1]-②의 <박혁거세신화>에서도 확인된다. 박혁거세의 도읍지인 서라벌(A) 역시 출생지(B)가 아니다. 출생지(B)는 서라벌(A)이 아니라 제3의 지역이며, 서라벌 고

16)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107-114쪽.

지(故地)는 출생지의 기존질서에 조화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나온 강림지(降臨地)일 뿐이다. 박혁거세는 애초에 알로서 잉태되어 탄생했던 출생지를 주관하고 있었던 지배집단과 불화하여 서라벌로 이주해온 이주자인 것이다. 자신의 출생지에 부조화 되어 이주해온 도래자이며, 이주 전에 존재했던 부모의 존재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주지의 지배질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부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이주지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6촌장의 지배질서를 자신이 주체가 된 새로운 이념질서로 대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박혁거세는 아기장수와 분지되는 건국시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자료2]의 해외이주성공형 아기장수설화의 그것과 유사하다. 아기장수가 부모나 1차집단으로부터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해외로 이주하여 새로운 사회의 통치 주체가 되는 해외이주성공형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미미한 형태로 축소되어 있으며,¹⁷⁾ 모계 역시 부재한 경우가 많다. 아기장수가 신이성을 타고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배이념을 내면화 한 민중 계층의 가정 내부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여 집단적인 차원으로 존재하는 민중의 이상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장수를 살해하는 아버지도, 살아남아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적대자에게 밀고하는 어머니도 없어야 가능하다. 민중의 자식으로 태어난 비범한 아기장수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가출-이주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보신을 위해 탁월한 아들을 죽이려고 드는 아버지와 신중성 없이 아들의 은신처를 발설하여 아기장수를 간접적으로 살해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때, [자료1]은 아기장수의 사회적 지위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자료2]과 같은 해외이주성공형 아기장수설화에서 가출-이주 전 단계에서 가정 내부에 존재했던 사회 부조화의 개인적 역사를 삭제한 형태가 된다. 여기에 애초 아기장수가 사회와 부조화됐었던 출생지(B) 중심적인 시각을 아기장수가 사회 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도읍지(A) 중심적인 시각으로 대체하면 [자료1]과 같은 형태가 완성된다. [자료1]은 [자료

17)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홍길동전>, 『친잠어문학』 12,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7, 13-14쪽.

2]와 같은 해외이주성공형 아기장수설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상징되는 사회 부조화의 기억들을 소거하고 사회 통합적인 건국신화적 영웅으로 각색한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료2]와 같은 해외이주성공형 아기장수설화에서 서사적 각색이 한 단계 더 진행되면 [자료3]과 같은 형태가 된다. [자료3]은 기존 지배질서에서 분리해 나와 해외에서 새로운 질서 창업에 성공한 아기장수 김통정에게 이류교혼의 신성혼을 통한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간접적인 원조 서사를 첨가해 놓은 텍스트이다. 수성(水性)계 신성동물과 지모신격인 인간여성의 신성혼을 통해 김통정에게 [자료2]의 아기장수에게는 부재했던 신성혈통을 부여해 놓았고, 모계도 일반 평민이 아니라 가문 있는 여성으로 격상시켜 놓았다. 이류교혼 이후 부계가 죽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부재 속에 아기장수가 살해당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성장하고 나서도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정체성을 발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장하고 나서도 해외로 이주하여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 김통정의 어머니는 아기장수설화의 기본형에 등장하는 모친처럼 재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조물자를 보내지는 않지만 아기장수의 정체를 숨기고 양육해주는 간접적인 원조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김통정이 살해되지 않고 살아남아 삼별초를 독립된 해양국가 형태로 유지시켰다면, [자료3]은 이류교혼의 신성혼 결과 탄생한 아기장수 김통정이 해외로 이주하여 창업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합리화 하는 일종의 <삼별초국신화> 혹은 <김통정신화>의 형태로 서사적 각색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자료3]-㉞까지만 진행되고 아기업가에 의한 배신과 관군에 의한 패배의 서사는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 [자료3]-㉞에서 김통정의 신성혈통과 모계의 원조에 관한 서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서사적 각색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혈통은 신성의 세대기(世代記)로 확장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모계의 원조는 지모신의 신성성과 관련된 상징들을 구호물자나 공간으로 등장시키는 방식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자료3]-㉞처럼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에 관한 서사가 첨가된 해외이주성공형 아기장수설화는 체제내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면 서사주체의 지배 권력을 정당화 하는 건국신화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아기장수설화의 해외이주성공형에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 서사를 첨가하여 지배질서 내부의 관점에서 서사적 각색이 진행된 것이 건국신화다 라는 [가설]-②를 따져보기로 하자.

[자료4] 같은 시기, 고기에 따르면, ㉗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매 홍익인간 할 만 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보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곳을 신시라고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중략) ㉘환웅은 이에 임시로 인간으로 변하여 혼인하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중국 요임금이 즉위한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움을 정하고, 처음 조선이라 불렀다. 후에 다시 도움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 그는 천오백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㉙주나라의 호왕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이에 장당경으로 옮겼다. ㉚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천구백 팔세였다.¹⁸⁾

[자료5] ㉛나성대의 부친이 장군이 나는 묘터에 아버지의 묘를 쓰고 그 발복으로 아들을 얻는다. 열다섯만에 태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조짐을 보이자 큰아버지가 아기장수임을 알고 빨래돌로 놀러 죽이라 하여 따랐는데, ㉜또 나성대가 태어나자 이번에는 거부하고 키웠다. 나성대가 자라서 군사훈련을 하다 서울로 올라가 김자점(金自點)과 함께 역적죄로 걸려 죽고, 나주 나씨도 멸문을 당했다는 이야기이다.¹⁹⁾

[자료4]는 <단군신화>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텍스트이다. [자료

18) “與高同時，古記云，昔有桓因，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雄率徒三千，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天王也，將風伯雨師雲師，(中略) 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號曰壇君王儉，以唐高即位五十年庚寅，都平壤城，始稱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中略) 御國一千五百年，周虎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壇君乃移於藏唐京，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古朝鮮王儉朝鮮〉，『古記』，『三國遺事』，卷一，奇異一，古朝鮮條。

19) <나성대 골창>,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1]에 부재한 부계 혈통의 신성계보와 신성혼을 통한 지모신격의 간접적 원조가 첨가되어 있다. 전자의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신성부계 삼대기는 애초의 평민이었던 아기장수의 신분을 신성하게 각색하기 위함이다. 부계가 부재한 [자료1]을 기준으로 아기장수설화 기본형과 각각 갈등적 부자관계·계승적 부자관계의 대칭점에 위치해 있다. 단군이 건국시조로 등극하기 위한 신성서사의 전제로서 기능하기 위해 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신격가문의 계보에 단군을 위치시키기 위해 신성혈통을 원조·수혈하는 역할이다. 후자의 지모신격 또한 모계의 신성혈통을 단군에게 전해주는 혈통적 원조자다. 웅녀가 신성혼을 위한 통과의례를 수행하는 굴혈은 지모신격의 상징공간으로 아기장수설화에서 아기장수의 요청으로 곡식을 제공하는 모계의 상실된 신성기원에 상응한다. 다른 점은 아기장수설화의 모계가 현실적 신분이 평민이며 아기장수의 요청 이전에는 자발적인 원조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달리, 웅녀의 경우는 신성동물인 데다가 단군을 출생시키기 위해 자기희생적인 통과의례를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부계·모계가 신성적·원조적으로 각색되어 있는 것이다. 서사적 각색이 신성화에 있다는 점에서는 [자료3]과 같지만 그 신성화의 방향성이 체제내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주목되는 것은 이처럼 체제내적인 관점으로 각색되어 있는 신성계보의 이면에 기존질서에 대한 서사주체의 부조화성과 분리성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신성계보가 아예 부재했던 [자료1]에서는 출생지(B)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도읍지(A)를 정해야 했던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자료4]에도 문면으로는 서사주체가 기존질서와 불화했다는 언표적 기술은 없다. [자료2]-㉔에서 확인되듯이 서사주체가 출생지(B)로부터 분리·이주하여 도읍지(A)를 다른 곳에 정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료1]과 같다. 문제는 [자료1]과는 달리 [자료4]-㉔의 서사주체인 단군에게는 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왕인 부계가 따로 설정되어 있으면 기존질서의 주체는 이 부계가 되고, 단군이 태어난 출생지(B)는 이 기존질서의 통치자인 환웅이 도읍했던 신시(神市)가 된다. 당연히 단군은 아버지 환웅이 어머니 웅녀와 결혼해서 자신을 낳은 출생지(B) 신시에 구축되어 있는 환웅의 통치 질서에 화합되지 못했던 것이 된다. 기존세력권자인 신성부계와 선천적으로 신성한 아기로 태어났던

미래의 건국조 아들 사이에 부자갈등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친부에 의해 살해되지 않고 살아남아 가출하여 이주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아기장수설화 제1·2유형과 같다. 단군도 애초에는 신이한 아기로 탄생했으나 부모가 구축한 기존질서에 통합되지 못하고 가출·이주하여 새로운 사회를 제도할 통치자로 받아들여진 아기장수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의 해외이주성공이 아기장수의 그것과 달리 창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갈등관계에 있는 친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계를 신성화·원조자로 바꾼 서사적 각색이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신성부계의 첫 단계를 구성하는 환인-환웅으로 소급해 들어가면, 기존질서의 통치자인 아버지와 그것에 부조화 한 결과, 분리·이주한 뒤에야 사회를 제도할 새로운 통치자가 되는 아기장수 사이에 존재했을 이면의 부자갈등 양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료4]-㉔에서 환웅의 아버지 환인은 천상에 존재한 기존질서의 통치자이고 환웅은 그의 아들로 태어난 신이한 아이다. 그런데 이 환웅은 아버지 환인이 만들고 유지하는 기존 체제의 지배이념에 조화되지 못하고 다른 이념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여 구축하고자 한다. 환웅의 탄생 이전 단계에 구축되어 있던 환인의 기존 통치이념은 일종의 신본주의(神本主義)이고, 이에 조화되지 못하는 환웅이 가출·이주 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지배이념은 인본주의(人本主義)이다. 선존(先存) 지배이념에 통합되지 못하는 후래(後來)의 새로운 지배이념 창조자가 바로 환웅의 정체성이다. 단군과 마찬가지로 환웅 역시 출생지(B)인 천상에서 부친의 왕업을 이어받아 등극하지 못하고 도읍지(A)인 신시로 분리·이주하여 자신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를 만들어낸 아기장수가 된다. 환웅도 [자료1]처럼 부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출생지(B)를 떠나 새로운 지역(A)에서 성공한 아기장수였으나, 창업에 성공한 뒤, 신성혈통과 천부신격(天父神格)의 원조서사가 첨가되어 각색된 건국신화적 영웅이 되는 것이다. 단군과의 차이점은 기존질서의 주체인 부계가 단지 신성혈통만 전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부인(天符印)이라는 신물(神物)을 제공하여 아들의 분리·이주를 통한 새로운 이념질서 구축과정을 직접적으로 원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기장수의 요청대로 곡식을 보내서 부활·재생을 원조하는 아기장수의 어머니의 지모신격적 기원을 천부신격의 자

발적 원조로 바뀌놓은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면 환웅은 단군 보다 먼저 존재했던 해외이주성공형 아기장수가 건국신화적으로 각색된 건국시조이며, 창업한 지배질서의 구체적인 국명만 다를 뿐 그 형태는 반복해서 복제된 클론(clone)과도 같다.²⁰⁾ 기존질서에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해 나와서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하는데 이미 성공한 선발(先發) 아기장수의 그것에 조화되지 못하여 가출·이주한 아기장수가 다른 곳에서 다시 새로운 통치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재생의 반복 재생산인 것이다. 즉, 전대에 왕이 되는데 성공한 1대 아기장수의 도읍지(A1)는 그 아들로 태어났지만 도읍지(A1)를 중심으로 한 기존질서에 통합되지 못한 후대에 왕이 되는데 성공한 2대 아기장수의 출생지(B1)가 되고, 다시 2대 왕이 되는데 성공한 아기장수가 새로운 통치 질서를 구축한 도읍지(A2)는 그 도읍지(A2)를 출생지(B2)로 한 3대 왕이 되는데 성공할 아기장수가 부조화 되는 기존 지배 질서의 중심지가 되는 식이다. 여기서 만약 이 신성 세대기로의 각색이 삼대기가 아니라 사대기(四代記)였다면, 환인 역시 환웅이나 단군처럼 왕부(王父)가 통치 질서의 주체로 있는 출생지(B)를 떠나 다른 지역권에 있는 도읍지(A)에서 창업에 성공한 아기장수가 된다. 환인 이전 세대가 반복적으로 열려있지 않은 것은 환인을 기존질서의 기원이 되는 신성세계의 통치자로 설정해야 <단군신화>를 삼대의 신성혈통 세대기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삼대기로 마감하기 위해서 환인이 부모가 부재한 선천적인 왕으로 설정된 것이지, 세대기가 확장된다면 환인 또한 자신이 탄생한 아버지의 도읍지로부터 분리해 나와 새로운 도읍지를 열어 왕이 되는데 성공하는 아기장수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료4]-㉔·㉕의 신성 세대기가 왕이 되는데 성공한 선후발(先後發) 아기장수서사들의 수직적 연쇄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수직적인 연쇄의 계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한 아기장수들의 연대기는 총체적으로 보면 선발 아기장수가 완결 짓지 못한 창업의 기업율,

20) 물론 환웅은 천신으로서 지모신격과 신성혼을 하지만 단군에게는 이 신성혼이 부재하며, 환웅은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물리적 원조를 받는데 비해 단군에게는 이 직접적인 원조물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부수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후발 아기장수가 완성해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2대인 환웅의 성공기업은 개인적으로는 <환웅신화>의 완성이지만 <고조선신화>와 동격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단군신화>의 일부분을 구성해 낸 것에 불과하다는 의식이다. 3대인 단군이 환웅조선의 기업적 바탕 위에 <단군조선신화>를 써야 <단군신화>가 완성된다는 인식인 것이다. 여기서 환웅조선의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와 단군조선의 질서를 창안하는 부조화성과 분리성의 아기장수적 맥락은 소거되고 수직적 연쇄성이 인식적으로 전면화 되는데, 이러한 인식적 재구성이 바로 선후발 아기장수들의 서사를 고조선 건국신화로 총체적 재맥락화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는 거꾸로 보면 애초에 아기장수였던 새로운 질서의 창업자들이 국가적 기업을 1대에서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아기장수가 평민인 아버지가 총괄하는 가정 내부의 지배질서를 떠나 가출·이주하여 자신이 주체가 된 새로운 이념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통치 질서를 교체하는 거시적인 창업으로 완결되지는 못한다는 인식이다. 요컨대, 평민을 아버지로 둔 아기장수가 고향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여 자신의 비범성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의 새로운 질서를 열고, 이 성공한 아기장수를 아버지로 하여 상대적으로 상승된 가문적 기반에서 출생한 아기장수가 고향에 위치한 아버지의 기업보다 더 큰 단위의 새로운 기업을 열기 위해 다시 고향을 떠나 새로운 통치 질서가 통용되는 지역권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반복되어야 국가적 규모의 기존 통치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질서를 완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인식논리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기장수들의 연대기에서 성공의 반복 확장적 연쇄를 실패로 대체하게 되면 [자료5]가 된다. [자료5]는 기존질서로부터 살해당한 1대 아기장수([자료5]-㉔)가 2대 아기장수([자료5]-㉕)로 계승되고, 이러한 재생이 반복되어야 탄생 직후 살해당하지 않고 성장하는 아기장수가 나온다는 의식을 보여준다. 탄생 직후 살아남은 아기장수도 결국 지배질서에 의해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하지만, 반복 재생²¹⁾ 과정에서 확장된 현실 대응력이 또 다음 대에

21) 아기장수설화의 반복 재생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해 주기

계속 재생되어 나올 아기장수들이 현실적 성공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민중들의 이상에 기반 한 인식이다. [자료5]-㉔ 이후에 3대 아기장수가 나오고, 다시 그 후예들이 반복 재생되어 나오는 끝에는 기존질서로부터 살해당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여 성공한 기업을 여는 해외이주성공형 아기장수([자료2])가 나오고, 이 성공한 아기장수에게 신성혈통과 지모신격의 원조 서사가 첨가([자료3]-㉕) 된 뒤에, 체제내적인 시각에서 전체 서사를 재구성하게 되면 아기장수의 개인적 역사를 세탁한 성공한 아기장수([자료1])의 신화가 되며, 이 성공한 아기장수의 신화에 신성혈통의 누대기와 신성혼이 부가 확장되면 건국신화의 세대기([자료4])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수직적 세대기에는 아기장수들 간의 경쟁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선·후대 아기장수가 수직적 연대기로 묶여 있다는 것은 궁극적 더원(the one)이 세대적으로 분립되어 있는 것일 뿐인 하나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부조화성과 분리성은 존재해도 경쟁은 없다. 반면, [자료4]-㉕처럼 아기장수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배열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해당 신화 텍스트의 서술시각이 인정하는 유일한 창업에 성공한 아기장수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후보들이 된다. 동시대에 존재하며 창업성공을 위해 다투는 아기장수들의 서사적 헤게모니 경쟁의 문제가 된다. 바로 [가설]-③에 해당하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단군의 등극 이후에 삼대를 이은 고조선의 창업기는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료4]의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자료4]-㉕·㉖를 보면 단군은 고조선을 평양성(도읍지A')에 고조선을 창업한 이후 다시 도읍지를 두 번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 일단 사회제도의 주체로 받아들여져 건국을 했던 지역권들에서 단군이 사회를 제도할 통치자로서 최종적으로 안착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당 [자료4]-㉕는 평양성(도읍지A')·아사달(도읍지A'')에서 단

바란다.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5, 한국고전문학회, 1990, 103-125쪽; 권도경, <아기장수설화의 서사가지(narrative tree)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선택지, 그리고 드라마〈각시탈〉의 아기장수설화 새로 쓰기>, 『국어국문학』163, 국어국문학회, 2013, 279-313쪽.

군이 사회 통합의 주체자 위치에서 분리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역시 자신의 출생지(B)를 지배하는 질서로부터 조화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나와 아사달(도읍지A²¹)에서 단군을 대신하여 사회통합 주체로 받아들여진 기자의 존재다. 단군조선의 최후 도읍지를 주관하는 출생지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가출·이주하여 다른 지역권의 창업주체가 되는 것은 환웅·단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던 바다. 그러나 환웅·단군이 부계의 지역권에서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나가도 최종적으로 건국에 성공한 아기장수로 수렴되는 총체적인 연대기 내부에 묶여있는데 비해서, 기자는 해당 수직적 연쇄와는 계열을 달리하는 존재다. 대신 기자는 주호왕으로 표상되는 단군조선 위의 상위 지배질서에 의해, 단군조선의 최후 도읍지를, 단군을 대체하여 제도할 새로운 통치자로 선포되어 있다. 아사달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의 지배질서 통치권을 두고 먼저 성공한 아기장수와 나중에 도래하여 최종적인 성공을 거머쥐고자 하는 아기장수가 경쟁하는 형태인 것이다. 아기장수들의 수평적인 경쟁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수평적이지만 이 경쟁이 동등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자료4]-㉔에서 확인되듯이 단군과 기자의 수평적 경쟁서사는 전자를 성공한 아기장수로 선포하여 합리화하기 위한 <단군신화>의 삼대기 계보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기장수로 출발했던 기자의 성공기가 한국신화사에서 주류로 선택되었다면 거꾸로 단군을 기자가 해체해야 할 기존질서의 주체로 편입시키는 <기자신화>의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하나의(one) 성공한 아기장수서사가 다른(the other) 성공한 아기장수서사를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①적대자로 편입시키는 방식과 ②보조자·조력자로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먼저, ①의 적대자로 편입시키는 방식은 [자료4]-㉔·㉕에서 확인된다. [자료4]-㉔에서 단군의 지배질서를 일시적으로 대체했던 기자조선은 [자료4]-㉕에서 다시 지배권력을 회복한 단군조선에 의해 재교체 되어 있다. 따라서 기자는 출생지(B)에서 단군의 도읍지(A)로 이주해 와서 지배질서의 주도권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시 재생·부활한 단군²²⁾이 최종적으로 고조선의 시

22) 기자조선을 재대체한 단군이 환웅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단군인지 아니면 애초에

조가 되는 과정에서 사회 통합의 주도권을 탈취하고자 했던 ①의 적대자로 재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조력자로 편입시키는 방식 [자료4]에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지만 다음의 자료에서 경쟁하던 한 아기장수서사가 다른 아기장수서사의 조력자로 편입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6] 품평리에 날개 달린 아기장수가 났는데. 부모가 날개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출세를 못하고 이름 없이 살다가 나주에서 왕 노릇을 한 나성대 밑에서 파총 벼슬을 하였다. 개구리가 올 때 울지 마라고 하면 마라 하니까 멈췄다. 나성대가 궁궐 지을 때 큰 대들보를 갖다 썼는데 잡으러 오면 피할 때 대들보 위에 구멍 파고 그 위에 누워 숨었다. 잡힐 때 도복 웃고름이 보여서 잡혔다. 그날 부인이 단추를 달아줬는데 자기가 웃고름을 달아달라고 해서 잡힌 것이다. 나주에는 성 쌓느라 돌이 다 없어졌는데. 인근의 돌이 굴러갔고, 이파총은 큰 강을 날개로 날아서 공부하러 다녔다. 이양리 이영희의 5대조다.²³⁾

[자료6]에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총 세 명의 아기장수가 등장한다. 하나는 [자료6]의 주인공 이파총이다. 이파총은 부모가 날개를 다 뽑아버려서 성공하지 못한 아기장수로 나온다. 다른 하나는 최종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사회 통합 주체가 되는 데는 실패했던 [자료5]의 아기장수 나성대다. 나머지 하나는 [자료5]와 [자료6]에서 나성대와 이파총 보다 먼저 국가단위의 지배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또 다른 아기장수다. [자료5]에서 나성대를 김자점과 엮어서 역적으로 처리한 동시에 [자료6]에서 이파총을 잡으러 온 지배이념의 주체가 된다. 이 국가단위 지배질서의 통치자를 중심으로 한 서술체계 속에 [자료5]의 나성대와 [자료6]의 이파총은 모두 반역자로 편입된다. ①의 적대자로 편입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자료6]에서 나성대와 이파총의 관계는 ①이

고유명사였던 단군이라는 명칭을 왕명(王名)으로 삼은 단군의 후손인지는 역사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환인에서부터 단군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총체가 기자의 그것과는 병렬적인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3) <힘이 센 이파총>, 『한국구비문학대계』 6-11, 전남편, 이양면설화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74-276쪽.

아니라 ②의 관계로 되어 있다. 민중의 아들로 태어나 나주에서 왕 노릇을 한 나성대는 소단위 지역권 내부에서는 사회통합의 주체자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소단위 지역 지배질서의 통치권을 두고 아기장수로서 나성대와 경쟁한 것이 바로 이파총이다. 명령해서 개구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궁궐 축성공사에 쓰일 큰 바위를 저절로 굴러가게 할 수 있으며 큰 강을 날개로 날아서 공부하러 다녔다는 것은 나성대와 동등하게 경쟁할 만한 이파총의 신이한 아기장수성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파총은 나성대의 지배이념을 내면화 한 부모에 의해 날개가 뽑힌 채 나성대 밑에서 말단 벼슬을 함으로써 나성대를 주체로 한 나주 지역의 통치질서 체제에 보조자로 편입되어 있다. 애초에 소단위 지역권의 지배질서를 구축할 만한 자질을 타고 났으나 일차집단 내부에서 날개로 상징되는 비범성을 일치감치 거세당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으나 가족들에 의해 탁월성을 제거당하지 않았던 또 다른 아기장수가 먼저 구축한 소단위 지배질서 속에 경쟁을 포기하고 보조자로 편입되는 방식이 된다.

I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선행연구사에서 건국신화에 대하여 아기장수설화가 상대적인 차별성으로 지적되어 온 두 가지 미적 특질, 즉 기존질서에 대한 부조화성과 분리성이 과연 아기장수만의 전유물인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했다. 지배이념에 대한 불화와 분리는 건국시조에 대해서도 똑 같이 확인된다. 다만, 아기장수와 차별성은 분리·이주 후에 자신이 주체가 된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데 있게 된다. 게다가 기존에 해외이주성공형으로 분류되어 온 아기장수설화의 특정 이본군 중에는 건국신화처럼 해외로 이주하여 자신이 주축이 된 새로운 국가질서를 개창한 아기장수를 주인공으로 한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건국신화의 어법으로 설명하자면 건국시조가 되는 셈인데, 이들이 건국조가 아니라 아기장수로 남은 것은 당초 분리되어 나오기 전 단계의 사회를 지배하던 이념에 의해 포착되어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원래가 건국신

화란 자기집단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신성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들 해외이주성공형의 아기장수들도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정당화 하는 주체적인 언술에 의해 언표화 되었다면 건국시조로 형상화 되었을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국신화란 ‘아기’였던 장수가 단순히 분리·이주 후에 건국에 성공했다고 하여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권력을 합리화 하는 일종의 신성각색(神聖脚色)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성립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건국신화는 조화로운 ‘아기’를 환영한 지배질서가 그를 신성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질서와 부조화 된 ‘아기’가 분리·이주·건국 후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신성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기장수설화의 각색담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건국신화를 아기장수설화의 해외이주성공형이 신성하게 각색된 이야기로 보게 되면, 건국시조 역시 신성화 이전 단계까지는 아기장수처럼 기존 질서의 주재자와 지배 권력의 소유 여부를 두고 경쟁하는 존재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존질서의 주재자는 자신을 신성시 하는 관념을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 통용시키는데 성공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이 경쟁자 역시 건국시조가 분리·이주하기 이전 사회질서를 창건하는데 성공한 아기장수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 건국신화를 기존질서에 대한 순응적(順應的)인 이야기로 보는 일반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 참고 문헌

- 강유리, <아기장수 설화 연구:이데올로기 수용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 2, 한국고전연구학회, 1996, 260-289쪽.
 고선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판타지성과 하위주체 발화 양상>, 『국제어문』 55, 2012.

- 곽정식, <아기장수 전설과 洪吉童傳의 比較 考察>, 『문화전통논집』 1, 경성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93, 53-66쪽.
- 권도경, <아기장수전설의 서사가지(narrative tree)와 역사적 트라우마 극복의 선택지, 그리고 드라마(각시탈)의 아기장수전설 새로 쓰기>,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 문학회, 2013, 279-313쪽.
- _____, <건국신화적 문화영웅일대기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국제어문』 제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329-363쪽.
-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신화적 주제 탐색>, 『구비문학연구』 10, 한국구비문학회, 2000, 53-86쪽.
- 김종태·정재림, <역사서사물, 『뿌리 깊은 나무』의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103-125쪽.
- 이혜화, <「아기장수 傳說」의 新考察:韓國의 超人的 悲劇과 그 背景>, 『한국민속학』 16, 한국민속학회, 1983, 265-285쪽.
- 임철호,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 『홍길동전』>, 『천잡어문학』 12, 전주대학교 국어교육 과, 1997, 9-38쪽.
- _____, <아기장수설화의 전승과:아기장수설화와 홍길동전(2)>,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1997, 1-33쪽.
-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形成과 意味>, 『한국학논집』 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133-151쪽.
-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151쪽.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107-114쪽.

❖ ABSTRACT

A new viewpoint to regulate foundation myth
as Akijangsu legend narrative's antistructure

Dokyung Kwon

This study was attempted to suggest a new viewpoint to regulate foundation myth as Akijangsu legend narrative's antistructure. The problem is that Akijangsu legend has been regulated as reversed narrative of foundation myth in precedent research history. Following this viewpoint, it is impossible to explain context that Gangchaeyoon's Akijangsu narrative is collected in Sejong's sovereign myth. But Gangchaeyoon is changed as helper to found ideology order and his Akijangsu narrative is collected in sovereign myth's context. Therefore in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sound out foundation possibility of new thesis the found myth is reversed narrative of Akijangsu legend. Choosing this standpoint, it is possible to regulate Sejong's sovereign myth as narrative dramatization of successful Akijangsu legend. At the same time it is possible to regulate Cheongkijun as Akijangsu that was situated in Sejong's sovereign myth as antagonist, competing and failing with Sejong to replace existing order by own ideological order.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found myth is reversed narrative of Akijangsu legend.

Key Words

건국신화, 세종신화, 왕권신화, 아기장수전설, 서사각색, 서사적 반구조, 사회부조화성, 분리·이주

foundation myth, Sejong myth, sovereign myth, Akijangsu legend, antistructure

논문접수일: 2014. 01. 25

심사완료일: 2014. 02. 28

게재확정일: 2014. 03. 12